

44462

루터와 칼빈의 성경 해석원리

지도교수 이 승 미

이 논문을 졸업논문으로 제출함

1991년 1월 일

고신대학 고려신학대학원

신 학 과

박 태 현

박태현의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19 년 월

목 차

I. 서론	2
A. 연구의 목적	2
B. 선행연구 고찰	3
C.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II. 본론	8
A. 중세기의 성경해석	8
B. 루터의 성경해석	10
1. 루터의 성경관	10
2. 루터의 성경해석원리	11
C. 칼빈의 성경해석	17
1. 칼빈의 성경관	17
2. 칼빈의 성경해석원리	24
D. 루터와 칼빈의 성경해석비교	33
1. 루터의 강조점 및 특징	33
2. 칼빈의 강조점 및 특징	35
3. 공통점	36
4. 영향	39
III. 결론	44
A. 요약	44
B. 평가	46
참고 문헌	48

I. 서론

A. 연구의 목적

“해석학”이란 해석의 원리와 법칙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과학이다.¹⁾ 위의 해석학의 정의를 성경과 관련시킬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는 실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려고하기 때문이다.

성경해석의 역사가운데 중세기의 해석방법에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은 많은 중요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잃어버렸던 성경의 권위를 되찾는 한편 하나님의 뜻을 성경가운데서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다.²⁾ 이들의 성경관과 해석원리는 현대 개혁주의 성경해석학의 모태

1) L.Berkhof, 성경해석학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운종호 송종섭

역, (서울:개혁주의 신행협회,1988),p.7.

2) B.B.Warfield, Calvin and Bible, pp.401-406. “칼빈의 성경관”, 김의환 역,

신학지남 제38권, p.22에서 재인용.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곧 말씀의 권위에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 되고 있다. 성경안에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대원리³⁾를 따라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았던 중세기의 오류를 깨뜨리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것은⁴⁾종교개혁자들의 커다란 공헌이 아닐 수 없다. 또 한편 종교개혁자들의 성경해석원리는 중세기의 사증적 의미⁵⁾의 해석을 탈피한 것으로서 성경해석의 역사적 새 장을 여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중 루터와 칼빈은 그 중심인물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성경관과 성경해석원리는 각각의 강조점과 특징을 갖고 있으며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그들의 영향은 현대 개혁주의 성경해석학에 커다란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루터와 칼빈의 성경해석원리를 중세기의 상황과 비교하여 그들의 성경해석상의 독특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려는 것이며, 개혁주의 성경해석학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B. 선행연구 고찰

루터신학에 관한 논문은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50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 내용적 깊이 역시 2차자료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⁶⁾

3)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컨콜디아사, 1988), pp.101-102,

이승미, 성경해석학 1989년도 강의노트 참조

4) B.B.Warfield, op,cit

5) 지원용, 말틴루터, (서울:컨콜디아사, 1987), p.118.

6) 루터선집 제9권, "한국과 루터연구", (서울:컨콜디아사, 1983), pp.559-561.

그 내용을 살펴보면 루터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연구와 탁상담화 연구 등으로 루터신학사상에 핵심을 다루고 있는 연구가 부족하며 주로 지원용박사의 “루터의 사상”(1961)에 의존한 루터의 교육사상 연구가 상당수이다. 그리고 1976년 이후로 루터의 교육사상과 두왕국교리에 국한되어 나타날 뿐이다.⁷⁾

특히 루터의 성경해석 원리에 관한 연구는 루터연구 제5집의 전경연박사의 “루터의 성경해석”과 “루터의 성경해석 방법과 그 영향”(엄현섭, 1990)의 논문들이며 루터교 성경해석의 실제적 지침들을 소개하는 성경해석학(허버트 마이어, 엄현섭 역)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루터의 성경해석원리에 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한편 칼빈의 신학사상에 관한 연구는 그 도입시기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편이다. 이는 1924년 최초 소개된 이후로 1984년까지 60년간 쓰여진 글은 240여편에 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⁸⁾

칼빈신학 연구의 부진은 나용화교수의 평가에서도 나타난다.⁹⁾

“그래서 장로교회의 신학의 뿌리인 칼빈이나 종교개혁의 선봉장인 루터에 대한 연구가 1990년에 들어와서야 시작되었다 칼빈의 연구는 니첼의 ‘칼빈의 신학’(이종성 역, 1973)과 한국신학대학의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나용화 역, 1976) 등이 있을 뿐 체계적인 연구가 극히 빈약하다.”

7) 나용화, “한국에서의 루터연구와 몇가지 문제점”, 신학과 시앙 제4집,

(서울: 루터신학교, 1990), pp.190-191.

8) 이상규, 한국에서의 칼빈연구 100년,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pp.13-14.

9) 나용화, op.cit., pp.188-89.

칼빈신학의 연구는 상당히 부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부족은 칼빈의 성경관과 해석원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특히 칼빈의 성경관과 해석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와 몇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문희석교수의 “칼빈의 성서해석에 대하여”(1980)에서 문희석교수는 칼빈의 성경주석이 청중들의 현대적 교화를 위하여 쓰여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¹⁰

문희석 교수의 논문에서 발견되는 칼빈주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라는 지적은 칼빈신학의 핵심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Soli Deo Gloria)을 잘 드러내 주는 말이다. 또 장신대학원 이상섭의 논문 “칼빈의 성서관과 한국장로교회 성서관의 비교연구”(1981)에서 이상섭은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인간의 말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성경은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제한성과 오류¹¹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상섭은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성령의 내적 증거”¹²에 두었고, 축자영감 교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비평학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10) 문희석, “칼빈의 성서해석에 대하여”, 교회와 신학 제12집(서울:장로회신학대학, 1980), pp.8-9.

11) 이상섭, “칼빈의 성서관과 한국장로교회 성서관의 비교연구”, (장신대학원, 1981)

칼빈의 성경해석상의 인간적 오류가 아니라, 칼빈이 말하기를 성경에는 인간적 오류로 인하여 표기상 잘못되어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계시는 오류와 부족이 없다.

12) J. Calvin, 기독교강요, 이종성외 3명(서울:생명의 말씀사, 1990), P.4:8:13.

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의 장호익의 논문 “성경의 권위에 관한 칼빈의 견해”(197)에서 장호익은 성령의 내적증거와 자증성으로서의 성경을 바라보는 칼빈의 견해를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을 펼치고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성경이 본래부터 갖는 권위에 근거하고 있다. 곧 하나님에게서 기원하였다고 하여 인간적인 요소의 불완전성이나 제약성은 하나도 섞이지 않게 감동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장호익의 논문은 칼빈의 성경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지적은 정당한 것이다.

위와같은 논문들이 칼빈의 성경관과 해석원리에 대한 연구논문들로서 칼빈의 성경관과 해석원리를 비추어 주고 있다.

위에서 살핀 대로 루터와 칼빈의 각각의 성경관과 해석원리에 대한 약간의 소개는 있지만 현재 루터와 칼빈의 연구한 성경해석원리를 구체적으로 비교 연구한 논문은 없어 아쉬운 입장에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루터와 칼빈의 성경해석원리에 대한 상호비교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해석원리가 갖는 강조점과 특징들, 그리고 그 영향이 현재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C. 연구의 범위와 방법

루터와 칼빈의 성경해석원리를 살피기 전에 개혁자들의 해석원리가 갖는 중요성과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중세기의 해석원리를 살핀 후에 루터의 성경관과 해석원리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칼빈의 성경관과 성경해석원리를 살펴본다. 그런 연후에 그들의 성경해석원리가 갖는 강조점과 특징들, 공통점, 영향을 찾아 보고자 한다.

본 고의 연구범위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와 「칼빈주석」 및 소논문들과 루터의

작품인 「루터선집」 및 소논문들을 통해 루터와 칼빈의 성경해석원리를 상호비교 연구코자 한다.

II. 본론

A. 중세기의 성경해석

중세기의 성경해석의 공통점은 교회의 전통과 권위에 의하여 우의적 해석을 했으며, 모든 텍스트(Text)에서 사중적의미(letter, allegory, moral, anagogy)를 찾아내는 것이었다.¹³ 즉 문자적 의미와 우의적 의미, 도덕적 의미, 신비적 의미를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세는 문자적 역사적 해석과 본문의 문맥등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우의적 해석으로 신비적 뜻을 찾으려고 했다. 중세기에 있어서 성경해석의 열쇠가 되었던 것은 전통이었다. 모든 해석은 교회의 전통에 조화되게 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는데 여기서의 그 전통은 기독교 교부시대의 유산이었다. 성경해석자는 언제든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교부작가들의 해석과 조화 일치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만 한다는 로마교회의 전통이었다.¹⁴

다나와 글레이즈는 중세의 공통적 해석 방법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전통적 해석방법으로서 이는 교회의 전통과 교리적 권위가 성경해석의 판단기준이 되었다. 둘째, 스콜라적 해석법으로서 이는 당시의 우의적해석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었다. 즉 문자적 의미를 해석의 기초로 삼은 것이다. 셋째, 신비적 해석으로서 전통적 해석방법의 반동으로 일어난 현상이었다. 이는 성문화된 계시 없이도 신과 직접 교제하려는 우의적 해석방법이다.¹⁵

13 J.D.Adams, 성서해석학의 입문, 안정호 역 (1983), P.54.

14) 정인찬편, 성서대백과 제8권 (서울:기독교지혜사, 1987), p.416.

그러나 중세후기에는 히브리어 연구와 문자적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성경의 원문참고의 필요성과 문자적, 역사적 해석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종교개혁까지 영향을 주었다.

또 한편, 옥캄(W. Occam, 1280-1349)의 유명론은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옥캄은 계시와 인간이성을 구별하여 이성의 영역으로 자연, 철학, 과학 등이 있으며, 계시의 영역인 신앙, 계시, 구원, 십자가의 죽음, 부활등이 있다¹⁵⁾고 보았다. 그러므로 신학적 교의의 권위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그 기초를 둔다¹⁶⁾고 하였다. 이러한 옥캄의 사상은 루터에게 영향을 주어 철학을 배격하고 성경의 권위를 최상위에 두게 되었다. 위의 성경의 원문연구와 옥캄의 유명론이 중세의 전통을 깨뜨리고 성경해석의 새로운 개혁을 가져오게 된 두가지 큰 원인이 되었다.

15) H.E.Dana & R. E.Glaze 신약석의의 입문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박수암 역, (서울: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84), p.117.

16) R. M. Grant, 성서해석의 역사 (a short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이상훈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0), P.77.

17) Ibid.

B. 루터의 성경해석

1. 루터의 성경관

루터는 성경의 권위를 원문연구를 통하여 확신하였다. 그는 히브리어 연구 이후에 희랍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희랍어에 대한 그의 이해가 점점 깊어짐에 따라 원문성경으로 불게이트의 불완전한 점을 찾아내기까지 하였다. 철저한 원문연구를 통하여 즐거움을 느낀 루터는 원문에 의한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였다.¹⁸⁾ 루터의 원문연구는 성경의 뜻을 한층 밝혀 줄 뿐 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반대하고 나서도록 자극하였다. 지원용의 “말틴 루터”에 의하면, 루터가 말하기를 “교황이 명령하고 제정하여 행하게 한 모든 일을 나는 먼저 성서에 의거하여 판단한 다음에 수락하려고 한다. 그 이유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밑에 있어야 하며 성서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루터전집 6:322)

루터의 이러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을 <성령의 기록> 혹은 <성령 자신의 쓰신 기록>이라고 확신한 데 있다.¹⁹⁾

결국 루터는 성경을 교회의 전통과 교리보다 우월한 권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희랍어 및 원문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²⁰⁾ 그것은 성경을 <성령의 기록>으로 확신한 것이다.

18) 지원용, 파틴 루터 (서울: 컨콜디아사, 1987), p.118.

19) M.H.Smith, “성경해석과 신앙의 변증”, Simon Kistemaker, ed. 개혁주의

성경해석학(Interpreting God's Word Today), 김남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P.352.

20) 지원용, 말틴루터, op.cit., p.117.

2. 루터의 성경해석원리

루터의 성경해석의 원리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이다.

루터는 그의 성경해석원리의 토대를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서 시작한다. 루터는 교회의 권위와 간섭에서 벗어나 성경 그 자체의 유일무이한 권위와 성경으로 서만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루터는 중세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교회의 도덕과 철학적인 신학으로 색칠해 놓았으나 루터는 이와같은 도덕주의나 철학에 반 대하여 성경의 권위를 내세웠다.²¹⁾

“그는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우위성을 가르친다는 것과 성경은 스스로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철학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부르짖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루터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신학적인 전통을 깨뜨렸고 성경의 권위만으로 충분하며 전통주의는 다만 자신의 도덕주의와 그 철학화로 말미암아 성경의 명료성을 흐려놓는다고 주장했다.”²²⁾

루터의 이러한 생각은 전통적 견해를 포기한 것으로 성경해석의 기초를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서 만족한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루터는 성경본문 귀절의 문자적 의미만이 전체 신앙의 본질과 기독교신학으로 보았다.²³⁾ 그는 그의 저서 「탁상담화」에서 “가장 훌륭한 예술은 성경을 평이하고

21) M.H.Smith. op.cit.,p.355.

22) Ibid.

23) Ibid.,p.354.

단순한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다”고 선언했다.²⁴⁾ 곧 여자적인 말씀에 기초하여 해석해야한다고 했다. 또 루터는 “성경본문을 만일 그것을 다르게 취급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를 취급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한다.²⁵⁾

루터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 이외의 그 어떤것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루터의 노력은 개인의 판단권을 옹호하고, 문맥과 역사적 환경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해석자의 신앙과 영적 통찰력을 요구하고 성경 어느곳에서라도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였다.

특히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중세기의 해석방법인 사증적의미를 포기하는 것을 보여준다.

루터는 1513년 시편강의에 있어서 성경의 사증의미론을 따랐으나²⁶⁾ 이 방법에 의한 성경해석방법의 위험성을 알고 극력 이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성경의 사증의미론에서 탈출하였는데 2가지 방법으로 성공하였다. 하나는 ‘말’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으로 문법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의 말씀이 ‘현재’ 각 개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곧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신(使信)이

24) Ibid.

25) Ibid., p.355.

26) 지원용, 말틴루터, op.cit., p.118.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자적 의미로 유대나라의 한 도시이고 은유적 해석은 선한 사람이며, 전의적 해석은 여러가지 덕을 의미하고, 영적 해석은 보수를 가르킨다.

라는 점에 유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1517년 일곱참회의 시편강해에서는 이제까지 사용하던 성경의 사증의미론을 사용하지 않았다.²⁷⁾

(3) 성경의 명료성이다.

루터가 말한 성경의 명료성은 복음과 율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한 부분의 말씀을 다른 부분의 말씀과 같이 참고하며, 쉽고 명료한 본문에 의거하여 불명료 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해명하는 하나의 비교연구법을 응용하려고 한 것이다.²⁸⁾ 루터는 성경가운데 나타난 진리의 근본적인 교리와 개념은 모든 신자에게 알기 쉽게 되어있다고 생각한다.²⁹⁾

이러한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끌어 준다. 즉 루터는 성경해석이나 이해에 있어서 전후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성경본문의 무차별한 연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만일 신학자가 과오를 피하려면 성서의 전체를 고려하고, 상반되는 점을 다른 상반되는 점과 비교하는 것이 신학자의 의무일 것이다.”고 주장한다.³⁰⁾

루터의 성경전체를 고려하는 성경의 명료성은 Sola Scriptura (오직 성경만으로)의 “성서가 성서를 해석한다”.(루터전집 vⅡ, p.97)는 원리에서 잘 나타난다.³¹⁾ 곧 루터는 말하기를 “성서를 성서에 따라 바르게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해석의 참된 방법이다.”고 한다.³²⁾

27) Ibid., p.119.

28)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op.cit., p.101.

29) Ibid.

30) Ibid., p.102.

31) Ibid.

(4)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루터의 성경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그리스도론적이다. “성서에서 그리스도를 없이하라 그리하면 그 이상 무엇을 거기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에라스무스에게 물었다.³²⁾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성경의 문학적 의미와 영적 의미이며 이 둘은 그리스도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것은 루터의 모든 주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표가 되는 성경에 대한 그의 그리스도론적인 추구를 검토하게 된다.³³⁾

루터는 한편으로는 성경이 유일한 생활법칙이라고 주장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성경의 전체내용은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은 비록 베드로와 바울이 그 내용을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도적이 아니다”고 말 한데서 알 수 있다.³⁴⁾

루터는 그리스도안에서 성경해석의 열쇠를 발견하고 성경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발견코자 노력한다. 곧 성경의 일체성과 전체성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성경전체는 그리스도안에서 이해되어진다.³⁵⁾

이러한 루터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원리는 현대 성경연구자들에게는 너무도 급진적인 것인데 에스더서와 야고보서와 같은 책은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타내 보

32) Ibid.

33) Ibid., P.103.

34) Ibid., P.103.

35) M.H.Smith, op.cit., p.353.

36) 지원용, 말틴루터, op.cit., p.121.

이지 않기 때문에 그 책들이 성경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남긴다.³⁷⁾
즉 현대 비평학을 남게하는 요소를 남겨 놓았다.

루터는 이상의 4가지 원리에 따라 그의 이사야 (1528) 서문에서 성경해석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³⁸⁾

- (1) 문법적 지식에 관한 필요성
- (2) 시대, 환경, 상황을 고려하는 중요성
- (3) 전후관계 문맥의 분명성
- (4) 믿음과 성령과 조명의 필요성
- (5) 신앙과 균형의 유지
- (6)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루터는 오직 성경을 연구한데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어³⁹⁾ “오직 믿음으로” (sola fide) 얻는 의를 강하게 주장한다. 루터는 성경연구에 있어서 성경에 쓰여진 용어의 근본 뜻을 알기 위하여 그 용어의 중심까지 파고든다.⁴⁰⁾ 루터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의 실질적 원리인 “오직 믿음으로” (sola fide),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형식적 원리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⁴¹⁾ 이처럼 루터에게 있어

37) H.T. Mayer, 성서해석학 (Interpretig the Holy Scripture), 엄현섭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8), p.52.

38) F.W. Farrar, History of Interpretation (Michigan: Baker Book House,

1967), pp.325-29. 김교태, “성서해석에 관한 사적 연구”

(1988), p.45. 재인용.

39)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op.cit., p.98.

40) Ibid., p.99.

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말씀이다.⁴²⁾ 결국 루터의 신학의 열쇠는 '말씀'의 신학이며 성경의 신학이기도 하다.⁴³⁾ 권위와 충분성으로 그의 해석원리의 기초가 되어 더 나아가 문자적 역사적 해석으로 인도되어 진다. 이는 성경의 명료성안서 보여지게 되어 문법적 해석과 성경 전체를 두고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원리를 갖게 되었다.

루터의 이러한 3가지는 성경의 모든 책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리스도는 전체 원주를 그릴 수 있는 원의 중심점이다.⁴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법은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언어학을 넘어서 성경의 '영적 해석'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만으로 성경을 이해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성령께서 그리스도 중심의 의미를 찾도록 조명해 주신다는 것이다.⁴⁵⁾

결론적으로 루터의 성경해석원리 4가지 및 6가지의 규칙들은 서로의 연관성을 맺고서 상호 작용하여 해석의 중요골격을 이루고 있다.

41) Ibid., p. 100.

42) Ibid., p. 90.

43) Ibid., p. 98.

44) R.M. Grant, 성서해석의 역사(a short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이상훈 역, op.cit., p.110.

45) Ibid.

C. 칼빈의 성경해석

1. 칼빈의 성경관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율법 예언 그리고 복음” “너에게 선포된 말씀” “하늘교리에 관한 증거문서” 등등의 동의어로 사용한다.⁴⁶⁾

칼빈은 성경을 3가지 면에서 유익한 규범으로 이해하였다.⁴⁷⁾

첫째는 하나님 지식에의 유일한 안내자이다.

둘째는 인간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

셋째로 참종교의 기초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높이 세웠는데 이는 당시의 로마교회와 제세레파들의 견해에 반대한 것이었다.⁴⁸⁾

첫째로, 당시의 로마교회는 성경의 영감을 믿고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였으나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아래 두었다. 즉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앞세워 결국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결정과 권위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⁴⁹⁾ 이에 칼빈은

“교회의 투표에 의해서 저들에게 인정될 때에만 비로소 성경이 많은 무게를 가진다고 하는 가장 해로운 오류가 널리 유행하였으니 이는 마치 하나님의

46) 김이곤, “칼빈의 성서관”,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이장식의 10명(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8), p. 43.

47) 이승기,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 교육사상비교연구”, (침신대학원: 1988), pp. 28-29.

48) B.B. Warfield., op. cit.

49) Ibid.

영원하며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인간의 전황적 의지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⁵⁰⁾

칼빈은 오히려 교회권위가 말씀에 기초할 때에만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⁵¹⁾

둘째로, 재세례파들은 성령의 권위를 내세워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켰다. 이에 대해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1권9장에서 반박한다.

“성경을 떠나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도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⁵²⁾

성령은 성경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 사이에 일종의 상호관계를 세우셨기⁵³⁾ 때문에 또한 성령은 자신이 성경에서 표현하신 바대로 자기 진리를 아주 굳게 결속하여 계시기 때문에⁵⁴⁾ 계시를 직접 받는다는 구실로 성경을 무시하고 그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이와같이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의 권위나, 신비적인 개인주의를 주장하여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50) J.Calvin, 기독교강요, op.cit., p.4:8:13.

51) Ibid.

52) Ibid., p.1:9:1.

53) Ibid., p.1:9:3.

54) Ibid.

로마교회나 재세례파를 성경의 권위로서 배격하였다. 그러면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관한 권위와 계시로서의 성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성령의 내적 증거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1권 7장 1절에서 성경의 권위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정되어야 한다¹⁾고 주장한다. 그러한 성령의 증거로 확정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안에서만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성경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²⁾

칼빈은 성경이 하늘로부터 직접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한 것으로 확신한다. 성경말씀은 언제나 성령의 증거로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칼빈은 이것을 “성령의 비밀의 증거”라고 한다³⁾ 다른 말로하면 성령의 저작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이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1) Ibid., p.1:7:4.

2) Ibid., p.1:7:1.

3) Ibid.,p.1:7:4.

칼빈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다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확신과 이 확신을 가능케 한 성령의 사역을 상호 관련시키고 있다. 즉 성령의 내적증거는 우리의 마음이 성경을 하나님 계시로서 확신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 그리고 역측에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근원, 곧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 한다.”⁴⁾

칼빈이 성령의 내적증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의 권위문제와 더불어 성경의 효용성 문제에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⁵⁾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성령의 내적증거에 의하여 우리에게 확인되는 그때부터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며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신적위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되, 인간적인 의지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생생하고 보다 더 효과있게 순종하도록 마음이 끌리게 되며 또한 순종의 불을 태우게 되는 것이다.”⁶⁾

(2). 성경의 자증성

칼빈은 성경 권위에 관하여 또 한가지를 강조하는 바 성경의 자증성이다.⁷⁾

“그러므로 성경이 자체의 진리를 명백히 증거하는 것은 마치 흰 것과 검은 것이 그 색깔을 드러내며, 단 것과 쓴 것이 그 맛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⁸⁾

4) Ibid.

5) Ibid.

6) Ibid., p.1:7:5.

7) Ibid.

성경의 자증성은 성경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순결한 눈과 건전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위엄은 즉시 우리 시야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대담한 거절을 억제하여,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칼빈은 말한다.⁹⁾

성경권위의 최종적인 근거는 성경이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독자적 권위에 의존한다. 성경의 진정한 권위는 그 참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해 있다는 말이다.¹⁰⁾ 곧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의 신적 기원에 있다. 이 말은 성경이 영감을 받아 신적 기원을 갖는다는 말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으로서 성경의 직접적인 저자이시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것은 곧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보여준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서¹¹⁾ 성경기자는 단지 성령의 도구로서 하늘로부터 명령되어진 것들을 말했을 뿐이다.¹²⁾ 즉 성령의 지도하심에 순종하여 기록한 것이다.¹³⁾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자신의 예민함과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로부터 얻은 신앙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증거를 고집한 것도 아

8) Ibid., p.1:7:2.

9) Ibid., p.1:7:4.

10) Ibid.

11) 딤후 3:16.

12) Calvin John, 딤후3:16 주해.

13) 벵후 1:20 주해.

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어 전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였다.”¹⁴⁾

성경기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즉 성령의 증거가 성경을 참되게 증거해 주는 요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주석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과 같은 것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율법과 선지서들은 인간의 뜻을 따라 전달된 교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구수(口授)된대로 받아 쓴 교리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말씀을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입 자체라고 담대하고 두려움없이 증거했다. 성경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인간적인 어떤 흔적도 뒤섞여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동일한 경외심을 가지고 경외해야 한다.”

또한 칼빈은 베드로후서 1장20절에 관한 주석에서도 “예언들은 확실한 말씀이요,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

..... 중 략

그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었다고 했지 그들의 주체성마저 상실해 버렸다고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입술을 지배하신 성령의 지도하심에 순종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고 하였다.¹⁵⁾

14) J. Calvin, 기독교강요, op.cit., p.1:7:4.

성경의 자증성은 성령의 내적증거를 받아 성경의 권위를 확신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그와 더불어 성경의 자증성을 독특하게 보여 주는 것이 있다면 단적인 예로 성경의 통일성을 들 수 있다.¹⁶⁾

칼빈은 성경전체 66권을 모두 기독교론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이미 “그리스도”위에 기초되어 있으며 “동일한 신앙”위에 근거되어 있다고 본다.¹⁷⁾

칼빈은 성경에서 구약성경을 신약성경보다 저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칼빈은 66권의 성경이 저자의 성격, 기록된 연대, 환경등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르지만, 이 단편들이 통일성 없는 수집에만 불과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유기체적인 통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¹⁸⁾

만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성경이 어렴풋한 그림자의 형태라면 신약성경은 색채가 확실한 그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¹⁹⁾

이처럼 칼빈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가 일정한 목표 즉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통일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칼빈은 성경의 권위와 독특한 증거를 통해 성경을 바라보았다. 즉

15) J. Horoutunian. ed., 칼빈의 조직신학해석 (Calvin Commentaries), 한국 칼빈

주의 연구원 편역(서울:기독교문화협회,1988),P.105.

16) 김이곤, “칼빈의 성서관”, op.cit.,p.53.

17) Ibid.

18) W.Niesel, 칼빈의 신학사상, 학술연구원 역 (서울:기독교문화협회,1988),p.129.

19) Ibid.

칼빈은 로마교회와 재세례파의 견해에 반대하여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위에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했고 말씀과 성령의 상호관계속에서 모순되지 않음을 증거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관한 권위와 계시로서의 성경을 성령의 내적증거와 성경의 자증성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성을 초월하는 더 높은 근원인 성령의 은밀한 증거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기록자는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아 기록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 칼빈의 성경해석원리

(1) 대전제

칼빈은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하는데 있어서 그의 성경관이 주석의 대전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즉 성경의 권위가 “성령의 내적증거”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세워지며 또한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정한 의미가 밝혀 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류가 없음을 그의 성경해석의 대전제로 삼고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성경의 진정한 해석자는 성령이시다.²⁰⁾ 즉 성령의 내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경해석만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경을 “사사로이”(벧후1:20) 풀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20) J.Haroutunian ed., 칼빈의 조직신학해석 (Calvin Commentaries),

op.cit.,p.104.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해석을 주장하는 것이다.²¹⁾

칼빈은 성경해석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있다고 보는 한편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류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 필자의 오류²²⁾까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갖지 않는다. 즉 칼빈은 성경의 영감으로서의 완전성과 필사자의 오류를 인정하였다. 서로 상반되는 것 같으나 성경의 완전성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지만 필사자의 오류는 하나님의 계시목적에 어긋나게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²³⁾ 성령은 오류를 범치 않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한 인간은 실수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칼빈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순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한다.²⁴⁾

(2). 동기와 목적

21) Ibid.

22) 예컨대 칼빈이 벰전 3:14이 이사야 8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점, 엠 4:8에 나타난 바울의 시편 68:19에 대한 언급은 인용이 아니고 개정이라는 점등을 지적한다. 특히 사도행전 7:16의 구약언급은 창 50:13, 수 24:32와 모순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논의의 끝에 “그러므로 이 구절은 시정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붙여 끝내기 까지 한다. Joseph Haroutunian, Calvin Commentaries, op.cit., p.34.

23) 이상섭, “칼빈의 성서관과 한국장로교회 성서관의 비교연구” op.cit., p.62.

24) Ibid.

칼빈은 성경주석을 하는 한가지 목적을 오직 “교회의 교화”를 위함이었다. 칼빈은 그의 성경주석이 “내 청중들의 현대적인 교화를 위해서”라는 명백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²⁵⁾

칼빈이 주석을 저작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신도들에게 알릴 것인가 하는 목회자적 동기에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⁶⁾ 즉 그때 당시 카톨릭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 이해는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이고 이것을 일반 신도 대중으로 하여금 성경의 본문자체의 뜻을 알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주석하였다.²⁷⁾ 칼빈 주석은 그의 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해석이었음을 필자는 특별히 주목한다. 그의 성경 주석은 “교회의 교화”와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한층 밝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군더더기와 같은 것으로 독자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깊은 배려까지 하고 있다.²⁸⁾ 그래서 칼빈은 압축적이고 간결한 주석을 통하여 교회의 공익을 증진시키고 주석작업에 착수한 것이다.²⁹⁾

칼빈은 그의 주석작업이 언제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서 곧 발전과 더불어 화합을 유지하는 것을 위한 해석으로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지닌 신앙의 본질을

25) 문희석, “칼빈의 성서해석에 대하여” 교회와 신학 제12집 (서울:장로회신학대학 1980).

26) 김정준, “성서주석가로서의 칼빈”,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op.cit., p.8.

27) Ibid.

28) J.Haroutunian, Calvin Commentaries, op.cit., p.89.

29) Ibid., p.88.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확신한다.³⁰⁾

(3). 해석방법

Hans - Joachim Kraus의 칼빈주석에 대한 글을 참조하면서 칼빈의 주석방법을 찾아 이해하고자 한다.

Kraus는 칼빈의 성경주석에서 여덟가지의 해석원칙을 제시하였다.³¹⁾

a. 명백성과 간결성의 원칙

그는 시몬 그레노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석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백성과 간결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³²⁾ 그래서 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성경을 간결하게 주석하려는 욕망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한다.³³⁾

칼빈의 이러한 명백성과 간결성은 해석의 결정적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석이 장황하고, 탐처럼 높이 쌓아 올리고 수레의 짐처럼 과중하게 적재된 내용들을 열거함으로써 성경 본문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³⁴⁾

30) J. Calvin. "Simon Grynaeus에게 보내는 서한: 로마서 주석에 대하여"

Joseph Haroutunian, Calvin Commentaries p.90.

31) H.J. 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Interpretation,

Vol. 31. 1977. pp. 8-18.

32) J. Haroutunian, Calvin Comm, op.cit., p. 85

33) Ibid., p. 86.

성경해석에 있어서 명백성과 간결성은 참으로 중요한 원리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뜻을 명쾌하고도 간결하게 해석하는 일은 성경의 원뜻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경의 내용이 명백한 것과 같이 해석 역시 명백해야함을 강조한다.³⁴⁾

칼빈은 시편주석 서문에서도 자기의 어떤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독자에게 인상을 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독자를 도와주고 유익하게 하려는 것 뿐이며, 그래서 그는 “평이한 이성의 가르침”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말한다.³⁵⁾

명백성과 간결성 그리고 “평이한 이성의 가르침”은 똑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서, 명백성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원칙들이다.³⁶⁾

b. 원저자들의 의도를 탐색하는 원칙

칼빈은 시몬 그레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을 해석자의 “거의 유일한 임무”라고 표현한다. 곧 해석자가 설명해야 할 성경저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다.³⁷⁾

칼빈의 주석에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저자의 의도를 묻는 것이다. 그래서 해석자는 언제든지 원저자의 의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또한 이 목표를 향해가는 해석의 과정에서 모든 장황한 해석들은 혼란한 것이 된다고 평가한다.³⁸⁾

34) H.J.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op.cit., p.13.

35) Ibid.

36) Ibid.

37) Ibid.

38) Ibid.

이러한 성경저자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는 언제나 해석해야 될 저자의 독특한 언어를 근본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전제되어 있다.³⁹⁾

칼빈의 어원연구는 참으로 깊고 대단한 내용이어서 그의 주석을 한층 빛나게 해주고 있다. 그의 어원연구는 고전적 인문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데⁴⁰⁾ 이러한 그의 문자적 해석방법은 작가의 심중의도를 밝히고 작품의 본질을 포착하기 위한 해석방법이었다. 이것은 중세기의 알레고리한 해석을 버리고 “문자주의”를 표방하는 것이었다.⁴²⁾

c. 성경의 배경연구원칙

성경의 배경연구는 저자의 정확한 목적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 조사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지리적, 제도적, 그리고 생활조건적인 사정, 쉽게 말해서 성경의 저자가 말했던 환경을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시대와 환경을 따라서 이해를 달리해야 될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환경을 밝혀내기 위하여 모든 자료와 가능성들을 적용하고 있다.⁴³⁾

칼빈의 이러한 연구 태도는 그의 역사가로서의 기질을 보여준다. 즉, 성경기자들 곧,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당시의 시대상황이라는 배경하에서 성경을 저술하였다고 증명하므로써 보여준다.⁴⁴⁾ 칼빈은 구약이 초기 기독교의 특히 그

39) Ibid.

40) J.Haroutunian ed., Calvin Conn, op.cit., p.31.

41) Ibid.

42) Ibid., p.32

43) H.J.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op.cit., p.14.

44) Joseph Haroutunian, Calvin Comm. p.32.

리스도의 설교를 위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시대적 야합을 신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추세로 파악했다.⁴⁵⁾

d. 본문전체의 순수한 의미 규정의 원칙

성경의 배경이 밝혀진 다음에는 저자의 의도가 명백히 인식될 수 있도록 어느 본문이나 해당귀절의 순수한 의미가 규명되어야 한다. 이 순수한 의미는 주요의미, 실제적인 의미, 단순한 의미, 또는 문법적인 의미라고도 불린다.⁴⁶⁾ 칼빈해석에 있어서 독특한 예는 창세기 3장15절에 대한 해석이다.⁴⁷⁾

칼빈의 주석에서 눈에 띄게 적용되어진 해석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본문의 순수한 의미규정을 위한 “성서가 성서를 해석한다”는 원칙이다.⁴⁸⁾

e. 본문의 문맥연구의 원칙

해석자가 어느 귀절을 해석할 때에 그 본문의 문맥(context)을 연구하면 많은 해석학적인 어려움들이 해명되고 적절하게 정복될 수가 있다.⁴⁹⁾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그 전체로서, “그 주변에 제시된 것들” 이, 곧 그 문맥이 신중하게 관찰되어야 한다.⁵⁰⁾

45) Ibid., p.33.

46) H.J.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op.cit., P.15.

47) Ibid.

48) Ibid.

49) Ibid., p.16.

50) Ibid.

성경해석에서 문맥연구의 중요성은 본문의 저자의 의도를 명백하고도 간결하게 나타내려는 해석원리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다. 문맥이 없는 의미 전달은 의미 있을 수 없으며 문맥을 통한 본문의 순수한 의미가 규정될 수 있을 뿐이다.

f. 성경문자적 단어적용의 원칙

칼빈은 “생명력있는 해석”⁵¹⁾ 을 하기를 원했다. 그는 어떤 표현의 본래적인 의도를 규명하는 원칙에 따라서 자기의 성경해석 전체를 추진시키고 있으며 저자의 의도를 엄격하게 추구하면서 “단어이상의 의미로 발전시키는 해석”을 한다.⁵²⁾

칼빈은 성경의 참된 의미를 벗어나, 어떤 해석학적 “말씀이상으로 전진하는 것”이 감행될 때에는 율법을 준 자의 정확하고 적절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고, 이 근원적인 의미가 해석에서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⁵³⁾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의 의견으로는 계명이 어떤 원인과 목적을 지니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다. 개개의 계명에서 우리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고려해야 된다.”⁵⁴⁾ 고 한다.

g. 비유해석의 원칙

해석자가 어떤 비유적 표현을 해석해야 할 때에는 특수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상징적 언어 형태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비유로 묘사된 것들을 서술

51) Ibid.

52) Ibid.

53) Ibid.

54) Ibid.

된 방식에 따라 예리한 통찰력으로 해명해야만 한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결코 “알레고리”가 아니다. 또 비유적인 설화 방식은 “과장법”으로도 이해할 것이 아니다. 과장법적인 표현들은 시의 영역에 속한 것이어서 비유와는 다른 것이다.⁵⁵⁾

h. 그리스도의 범위의 원칙

칼빈은 성경해석에서 그리스도의 범위가 차지하는 위치를 다음에서 잘 보여준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의도를 지니고 읽어야한다. 이러한 의도에서 벗어나는 자는 한 평생 성서를 애써 연구할지라도 그는 결코 진리를 깨닫는 데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고서도 슬기로운 수 있겠는가?”⁵⁶⁾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지혜와 깨달음이 충만하게 갖추어져 있다.(골2:3) ⁵⁷⁾

칼빈은 성경해석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목표로 삼았으며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즉 칼빈은 기독교론적인 해석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주석하였다.

칼빈의 성경해석원칙들을 여덟가지로 구분한 Kraus의 지적은 훌륭하다. 그 내용은 명백성과 간결성, 원리자의 의도를 탐색할 것과 성경의 배경연구, 본문자체의 순수의미규정과 그것을 위한 문맥연구, 성경문자적 단어적용, 비유해석 즉 상징적 언어형태의 연구, 그리스도범위 즉 기독교론적 해석원칙들이다.

55) Ibid.

56) Ibid.

57) Ibid.

D. 루터와 칼빈의 성경해석비교

1. 루터의 강조점및 특징

루터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을 “성령의 기록” 혹은 “성령자신의 쓰신 기록”이라고 확신하였다.⁵⁸⁾ 이는 순수한 원문연구를 통한 확신이었다.⁵⁹⁾ 이러한 루터의 성경관은 성경해석에 있어서 교회의 도덕이나철학적인 신학에서 탈피⁶⁰⁾ 하여 오직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⁶¹⁾는 것이다.

루터의 원문연구는 루터자신의 성경관을확고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주장하게 만들었다.그래서 그는 중세기의 사증적의미의 해석을 포기⁶²⁾하고 문법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며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라고 믿었다.⁶³⁾ 루터의 해석원리중 또 한가지는 성경의 명료성으로서 성경을 전체적으

58) M.H.Smith, “성경해석과 신앙의 변증”, op.cit., p.352.

59) 지원용, 말틴루터, op.cit., p.118.

60) M.H.Smith, “성경해석과 신앙의 변증”, op.cit., p.355.

61) Luther'Works Commentaries Vol. p.355.

“성경은 스스로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위해 철학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부르짖었다.”

62) 지원용, 말틴루터, op.cit., p.119.

63) Ibid.

로 보려는 노력이다. ⁶⁴ 이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대원리를 선언한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모든 주석에서 결정적 요소가 되는 해석원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즉 루터의 해석은 그리스도만의 원칙으로 말할 수 있다. ⁶⁵

루터의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경의 충분성과 문자적 의미의 규정, 성경의 명료성 등은 성경의 모든 책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리스도는 전체 원주를 그릴 수 있는 원의 중심점이다. ⁶⁶ 특별히 이러한 그리스도중심적 해석은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언어학을 넘어서 성경의 영적 해석에 이르도록 이끌어 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성령의 조명아래 그리스도중심의 의미를 파악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⁶⁷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내게 말씀하셔야 한다.” ⁶⁸

루터는 그의 이사야 서론에서 성경해석의 규칙을 6가지로 제시했다. ⁶⁹

64)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op.cit., p.102.

65) H.T. Mayer, 성서해석학 (Interpreting The Holy Scriptures), 엄현섭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8), p. 52.

66) R.M. Grant, 성서해석의 역사 (A Short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이상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p.110.

67) Ibid., p.111.

68) Ibid.

- (1) 문법적 지식에 관한 필요성
- (2) 시대 환경 사항을 고려하는 중요성
- (3) 전후관계 문맥의 중요성
- (4) 믿음과 성령과 조명의 필요성
- (5) 신앙과 규형의 유지
- (6)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2. 칼빈의 강조점 및 특징

칼빈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령의 내적증거”⁷⁰⁾ 즉 성령의 비밀의 증거로서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것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또한까지 성경의 권위를 주장함에 있어서 성경의 자증성⁷¹⁾을 내세운다. 즉 성경 권위의 최종적 근거로서 성경이 사람의 판단과 관계없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독자적 권위를 주장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⁷²⁾ 성령의 지도하심에 순

69) F.W.Farrar, History Of Interpretation (Michigan:Baker Book House,1967),

pp.325-329. 김교태, “성서해석에 관한 사적 연구” 1988,p.45.

재인용.

70) J.Calvin, 기독교강요,op.cit.,p.1:7:1.

71) Ibid.,p.1:7:5.

72) 딤후 3:16.

종하여 기록된 것이다.⁷³⁾

위와 같은 칼빈의 성경관은 그의 성경해석에 있어서 대 전제가 되어 있다. 이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성령의 내적증거에 의해서 밝혀지기 때문이다. 즉 성경의 진정한 해석자는 오직 성령이시다.⁷⁴⁾ 즉 성령에 의한 해석만이 올바른 해석임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의 명백한 목적이 청중들의 현대적 교화 즉 교회의 교화에 있었음을 밝힌다.⁷⁵⁾ 즉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신도대중으로 하여금 성경의 본문자체의 뜻을 알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주석하였다.⁷⁶⁾

특별히 칼빈의 주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석이다.⁷⁷⁾ 크라우스는 칼빈의 성경주석에서 칼빈의 8가지 해석원칙을 보여주었다.⁷⁸⁾ 그것은 명백성과 간결성의 원칙으로 시작하여 원저자의 의도를 탐색하는 것과 성경의 배경연구 본문의 문법적 의미규정, 문맥연구 성경의 단어적용과 비유해석, 그리스도의 범위에서 해석해야 함을 제시한다.

3. 공통점

73) 벵후 1:20 주해.

74) J.Haroutunian ed, 칼빈의 조직신학해석, op.cit., p.104.

75) 문희석, “칼빈의 성서해석에 대하여”, op.cit., p.8.

76) 김정준, “성서주석가로서의 칼빈”, op.cit., p.8.

77) 문희석, op.cit., p.8.

78) H.J.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op.cit., pp.8-18.

루터와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께 확신하였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 전통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두고 오직 성경 안에서 교회의 권위를 찾고자 하였다.⁷⁹⁾ 특별히 루터에게보다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성령의 내적증거와 자증성으로 설명했는데 칼빈은 더욱 조직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설명했다.

원문연구에 있어서 루터는 성경의 원문연구를 통한 문자적 의미를 추구하여 중세기의 사증적 의미 해석을 탈피하였다. 칼빈 역시 원문연구를 통하여 원저자의 의미를 탐색하며 문법적 의미를 규정함과 성경의 문맥연구, 단어연구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칼빈의 노력은 중세기의 해석인 우의적 해석을 피하게 하였으며 더욱 성경에만 충실하게 하였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은 함께 동의한다. 즉 루터는 성경의 명료성 즉 전체성으로서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대원리를 주장한다. 또한 성경을 성령의 조명아래 이해하여야 함을 루터는 힘주어 강조한다. 이에 대해 칼빈 역시 성령께서 진정한 성경의 해석자⁸⁰⁾이심을 주장한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처럼 성경해석은 성령의 조명아래 이루어 져야 함을 루터와 칼빈 모두 힘주어 주장하는 것을 볼때 성경은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령아래서 해석되어 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루터의 '영적해석'에 대하여 칼빈은 "생명력있는 해석"으로서 문자단어의 적용에 있어서 "단어이상의 의미"로 발전시키는 해석을 한다.⁸¹⁾

79) B.B.Warfield, Calvin and Bible, op.cit, pp.401-406.

80) Joseph Haroutunian, op.cit., p.104.

81) H.J.Kraus, op.cit., p.16.

루터의 “영적해석”은 칼빈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해석을 하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보다는 성경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통제하는 권위였다.⁸²⁾

루터의 성경해석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라 할때 칼빈의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해석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려는 루터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칼빈의 주석목적은 각각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터의 “그리스도만의 원칙”은 약간 지나칠 정도로 주장되었는데 이는 에스더서와 야고보서와 같은 책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책들이 성경이 남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⁸³⁾

이에 대하여 칼빈은 그리스도범위의 원칙으로서 성경의 전체가 유기적 통일성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통일된 성격이 있다고 주장한다.⁸⁴⁾ 칼빈은 성경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야 한다는 루터의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았다.⁸⁵⁾

결론적으로, 루터의 성경해석원리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만의 원칙으로서 기록론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다.

칼빈의 성경해석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로서 “교회의 교화”를 위한 명백성과 간결성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대로 칼빈의 성경해석은 루터보다 더 조직적이고 객관적임을 알 수 있다. 명백성과 간결성의 원칙은 치밀한 주석에서 필요한 것이었으며 객관적 주석을 위한 원문연구가 뒷 받침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82) R.M.Grant, op.cit., p.112.

83) Herbert T. Mayer, op.cit., p.52.

84) W.Niesel, 칼빈의 신학사상, op.cit., p.129.

85) L.Berkhof, 성경해석학, op.cit., p.27.

4. 영 함

이제는 이상에서 본 대로 루터와 칼빈의 성경해석이 현대 개혁주의 성경해석학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대 개혁주의 성경해석학⁸⁶⁾의 원리를 살펴 보기로 한다.

현대 개혁주의 성경해석학은 성경에 대한 정당한 개념으로서 영감설과 단일성, 다양성을 말하고 있다.⁸⁷⁾ 즉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으며 이러한 원리는 성경해석을 주관하는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가 되고 그러기에 경시해서는 안된다.⁸⁸⁾

또 성경의 여러 책들은 유기적인 단일성을 구성하는데 상호 의존적이 될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⁸⁹⁾ 그러나 이러한 단일성 이외도 성경은 또한 가장 현저한 다양성을 보여 준다.⁹⁰⁾ 즉 신구약성경 간의 특징(내용과 형식 언어), 성경 여러 책들간의 특이성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형태상의 특이점 등으로 다양성을 갖는다.⁹¹⁾

둘째로 문법적 해석이다.⁹²⁾

86) L. Berkhof, 성경해석학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윤종호, 송종섭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8).

87) Ibid., p. 42.

88) Ibid.

89) Ibid., p. 56.

90) Ibid., p. 58.

91) Ibid., pp. 58-60.

문법적 해석에는 독립된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고 관련되어 나타나는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낱말의 상징적 의미 규정과 낱말이 쓰여지게 되는 사상의 해석이 있다.⁹²⁾

셋째로 역사적 해석법이다.⁹⁴⁾

이는 성경의 내용이 특별한 역사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에 해석자는 합당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저자를 이해하거나 그 말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⁹⁵⁾ 그래서 역사적 해석법은 저자와 말하는자, 그리고 저자의 사회적 환경으로서 지리적, 정치적, 종교적 환경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저자의 글을 쓴 목적, 그 시대의 특별한 환경 및 정신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⁹⁶⁾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이다.⁹⁷⁾

바빙크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⁹⁸⁾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일관성있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

둘째로 성경의 신비적인 의미

셋째로 성경에 내포된 뜻

위의 세가지 사항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92) Ibid., p.74.

93) Ibid., pp.74-130.

94) Ibid., p.131.

95) Ibid., p.132.

96) Ibid., pp.134-154.

97) Ibid., p.155.

98) Ibid.

에 대한 합당한 해석자라는 중요사항을 고려할때 “신학적 해석”을 귀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것을 정당하게 한다.⁹⁹⁾

이상과 같은 개혁주의 성경해석학에 루터와 칼빈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성경해석원리를 살펴본다.

루터가 영향을 준 성경해석은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성경의 원문연구를 통한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것은 문자적 의미를 찾음으로써 중세기의 사증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었다.¹⁰⁰⁾ 또한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본문의 문맥을 고려하는 “성서가 성서를 해석한다”(루터전집 7권 p.97.)의 대원리¹⁰¹⁾를 제시한다. 루터는 또한 성경원문연구를 통하여 성경본문의 시대와 환경, 사황을 고려하는 역사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의적 해석을 범하지 않도록 자극한 것이다. 그러나 문법적 역사적 해석자체가 목적이 되어 끝나지는 않았다. 그 해석은 성경의 모든 책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였다.¹⁰²⁾

둘째는 기독교적 해석으로써 성경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였다. 이것은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해석원리였다.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전체 원주를 그릴 수 있는 원의 중심점이다.”라고 하였다.¹⁰³⁾

다른 한편으로 루터의 그리스도만의 원칙은 현대 비평학은 낳게 하는 요소가 되

99) Ibid., p.156.

:0) 지원용, 말틴루터, op.cit., p.119.

:1)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op.cit., p.102.

:2) R.M.Grant, op, cit., p.110.

:3) Ibid., p.111.

었다. 즉 성경의 모든 책에서 각각의 본문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심판이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야 한다고 교육받는 것이다.⁴⁾

칼빈의 해석원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성경의 자증성”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해석의 대전제로 삼았는데 칼빈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은 특별히 성경의 진정한 해석자로서 성령의 해석을 주장한다.⁵⁾ 즉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지는 해석만이 성경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경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조명인 것이다. 루터는 칼빈과 같이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리를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은 것 같다.

둘째,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원문연구를 통하여 원저자의 의도를 탐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성경본문의 문맥연구와 성경의 배경, 순수한 의미규정 등의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비평학적 요소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현대 역사적 비평학을 낳게 되었는데 칼빈은 이러한 모든 노력을 인간의 이성으로 풀려고 한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칼빈은 그의 해석학적 모든 해석노력이 성령을 통하여 해석되어야 함을 여러번 강조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⁶⁾ 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루터의 기독교적 해석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칼빈은 성경해석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목표를 삼았으며 그리스도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루터처럼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4) H. T. Mayer, op. cit., p. 52.

:5) J. Haroutunian, op. cit., p. 104.

:6) H. J. Kraus, op. cit., p. 16.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해석이다. 칼빈의 해석원리 중 명백성과 간결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경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하는 원리이다. 칼빈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만 그의 생각이 가득차 있었다.

Ⅲ. 결 론

A. 요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원칙을 따라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기록한 책에 지나지 않아 파구 동강이를 내게 하기도 한다. 특히 성경의 권위를 잃어 버렸던 중세기에 두사람의 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었으며 그들의 해석원리는 오늘 날에도 해석원리의 지침이 되고 있다.

요약하면 중세기에는 사증적 의미의 해석으로 -문자적 의미, 우의적의미, 도덕적의미, 신비적의미- 가득차 있었으나 루터는 원문연구를 통하여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였다.⁷⁾ 그리고 그 성경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루터는 노력하였다.⁸⁾ 루터는 그의 성경해석원리를 4가지면에서 보여주는데 첫째,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⁹⁾에서 시작하며, 둘째, 성경의 문자적의미¹⁰⁾를 찾는 것이다. 셋째, 성경의 명료성으로서 성경은 스스로가 해석한다¹¹⁾는 원칙을 천명하고 넷째,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원리¹²⁾이다. 성경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 애쓰는 루터의 모습을 볼 수 있

:7) 지원용, 말틴루터, op.cit., p.118.

:8) M.H.Smith, "성경해석과 신앙의 변증", op.cit., p.352.

:9) Ibid., p.355.

:10) Ibid., p.354.

:11)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op.cit., p.101.

다. 이러한 루터의 4가지 해석원리는 상호작용하여 해석의 중요골격을 이루고 있다.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해석의 대전제로서 “성령의 내적증거”²⁾와 “성경의 자증성”³⁾이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한 칼빈의 대전제는 “교회의 교화”⁴⁾를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⁵⁾을 위한 해석으로 이루어 졌다. 칼빈은 그의 해석의 첫 발을 명백성과 간결성⁶⁾에 두고 있는데 이는 칼빈주석의 특징인 것이다. 문자적, 역사적 해석법 으로서의 칼빈의 원저자의 의도와 성경의 배경연구, 본문의 의미규정, 문맥연구 성경의 문자적 단어 의미적용과 비유해석, 그리스도범위의 원칙을 그의 주석에 사용하고 있다.⁷⁾

두 사람의 성경해석상의 강조점및 특징은 루터의 기독교론적 해석⁸⁾과 칼빈의 하나님의 영광⁹⁾을 위한 해석으로 대변될 수 있다.

루터와 칼빈의 공통점은 성경의 원문연구를 통하여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게 된

2) Ibid., p.102.

3) J. Calvin, 기독교강요, op.cit., p.1:7:4.

4) Ibid., p.1:7:5.

5) 문희석, “칼빈의 성서해석에 대하여”, op.cit., p.8.

6) Ibid., p.9.

7) J. Haroutunian, Calvin Commentaries, op.cit., p.85.

8) H. J. 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pp.8-18.

9) H. T. Mayer, 성서해석학, op.cit., p.52.

<0> 문희석, “칼빈의 성서해석에 대하여”, op.cit., p.8.

것이다. 그 결과로 문법적, 역사적 해석원리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중세기의 우의적 해석을 탈피한 것이다. 또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대 원리를 주장하였으며 성경의 진정한 해석자는 성령이심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독교적 해석방법은 루터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나지만 칼빈 역시 기독교적 해석을 주장한다.

루터와 칼빈의 성경해석원리의 영향은 현대 개혁주의 성경해석학의 모태가 되고 있으며 문법적, 역사적 해석원리의 큰 등불로 남아 있다.

B. 평가

루터와 칼빈의 성경해석원리는 기독교적 해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해석으로 그 구체적 원칙과 규칙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 주고 있다.

그들의 성경의 권위에 관한 언급들은 현대 비평학적 입장에서는 수긍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의 감동과 내적증거 그리고 성경 스스로의 증거를 통해 성경에 충실한 자세를 갖고 있다. 또한 루터와 칼빈의 성경해석원리들은 원문연구를 통한 문법적 문맥연구는 중세기의 해석에 반대하여 성경의 권위를 되찾게 하였고, 성경 본문의 의도와 배경연구를 통한 역사적 해석은 알레고리를 벗어나는 획기적 성경 해석방법이었다.

특별히 루터와 칼빈을 비교해 볼때 루터는 중세 로마교회의 권위와 전통에 크게 반발하여 “오직 믿음만”²⁾ “오직 성경만”³⁾ “오직 은혜만”⁴⁾ “오직 그리스도만”⁵⁾으

<1> H.T.Mayer, 성서해석학, op.cit., P.54.

<2> Ibid.

로의 가치를 내세웠다. 이러한 루터의 “.....만”의 원리는 합당한 해석을 위한 신학적으로 압축된 내용을 제공한다.

이에 반하여 칼빈의 성경해석은 성경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석적 노력으로서 교회의 교화를 위한 작업이었다.

루터와 칼빈의 성경해석원리는 성경해석 역사상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분수령을 이루는 귀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Soli Deo Gloria!

<3> Ibid., p. 53.

<4> Ibid., p. 52.

- Adames, Danial, J. 성서해석학의 입문, 안종호 역, 서울 1983.
- Berkhof, L. 성경해석학(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은종호, 송종섭 역, 서울:개혁주의 신행협회, 1988.
- Calvin John,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0.
- Calvin John, 칼빈의 성경관. 편집부 엮음, 서울:풍만출판사, 1986.
- Grant Robert M. 성서해석의 역사(A Short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이상훈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0.
- Kistemaker, Simon ed. 개혁주의 성경해석학(Intepreting God's Word Today),
 김남식 역,, 서울:성광문화사, 1980.
- Mayer, Herbert T. 성서해석학(Interpreting The Holy Scriptures), 엄현섭 역,
 서울:컨콜디아사, 1988.
- Morton, H. Smith, "성서해석과 신앙의 변증", 김남식 역, 서울:성광문화사, 1980.
- Niesel, Wilhelm. 칼빈의 신학사상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by Harold Knight)
 기독교학술연구원 역, 서울:기독교문화협회, 1988.
- 문희석, 한국교회 구약성서 해석학사,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 이상규 편, 한국에서의 칼빈연구 100년, 서울: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 이장식 외 10명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8.
- 전경연, 루터신학의 제문제, 서울:한신대학 출판부, 1986.
- 지원용, 말틴루터, 서울:컨콜리아사, 1989.

김교태, “성서해석에 관한 사적연구” 장신대학원, 1988.

김의환, “칼빈의 성경관” 신학지남, 1971.

나용화, “한국에서의 루터연구와 몇가지 문제점” 신학과신앙, 제4집, 1990, p.187-224.

문희석, “구약성서해석사” 교회와 신학, 제10집.

문희석, “칼빈의 성서해석에 대하여” 교회와 신학, 제12집.

엄현섭, “루터의 성서해석방법과 그 영향”, 신학과 신앙, 제4집, 1990. pp.54-85.

이상섭, “칼빈의 성서관과 한국장로교회 성서관의 비교연구” 장신대학원, 1981.

이승기,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 교육사상 비교연구” 침신대학원, 1988.

장호익, “성경의 권위에 관한 칼빈의 견해” 총신대학원, 1987.

Hans - Joachim Kraus. “Calivin's Exegetical Principles” Interpretation,

Vol, 31. No.1 Jan. 1977. pp.8-18.